



THREE SOCIETIES

THREE SOCIETIES DISTILLERY

쓰리소사이어티스 증류소

THREE SOCIETIES, THE FIRST KOREA CRAFT SINGLE MALT DISTILLERY 한국 최초의 싱글몰트 증류소, 쓰리소사이어티스

한국 싱글몰트 위스키의 역사는 서울에서 북동쪽으로 40분 거리인 남양주에 터를 잡은 쓰리소사이어티스 증류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쓰리소사이어티스'라는 이름은 증류소를 함께 만들어 온 사람들의 구성에서 그 시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미교포인 창립자 도정환, 스코틀랜드에서 온 43년 경력의 마스터 디스틸러&블렌더 앤드류 샌드, 그리고 한국인 직원들.

이렇게 3개의 각기 다른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의 뜻을 가지고 힘을 모아
쓰리소사이어티스라는 증류소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쓰리소사이어티스는 한국에서 위스키를 시작하며,
새로운 땅에서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세계적인 위스키를 만드는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HISTORY

2020. 06	쓰리소사이어티스 증류소 설립
2020. 06	첫 증류 시작
2021. 01	프리미엄 싱글몰트 진 '정원' 출시
2021. 08	1,000개의 캐스크 숙성
2021. 09	한국 최초의 싱글몰트 위스키 '기원' 출시
2024.02	4,000개 이상의 캐스크 숙성

AWARD

2022 국제주류품평회(IWSC) 동상 - 기원 호랑이 에디션
2022 샌프란시스코 국제주류품평회(SFWSC) 금상 - 기원 유니콘 에디션
2023 샌프란시스코 국제주류품평회(SFWSC) 금상 - 기원 버진오크
2024 국제위스키품평회(WWA) 금상 - 기원 울로로소 웨리
2024 국제위스키품평회(WWA) 은상 - 기원 버진오크



HERITAGE STARTS HERE



OUR THREE PHILOSOPHIES

쓰리소사이어티스가 지키고자 하는 3가지 약속

장인정신

사람을 우선시 합니다.

쓰리소사이어티스 증류소는 당화, 발효, 증류에 해당하는 모든 생산 과정을
기계에 의존하기 보다 사람에 의해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재해석

전통 방식을 지킨 한국적인 위스키
스카치 전통 위스키 생산 방식을 사용하되, '쓰리소사이어티스'다운
그리고 한국적인 개성을 지닌 위스키를 만들고자 합니다.

품질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절대 타협 없이 최고의 맥아와 캐스크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RAFTMANSHIP, REINTERPRETION OF TRADITION, QUALITY

OUR TEAM

쓰리소사이어티스의 리더들을 소개합니다



창립자 도정한 / DO BRYAN HAN

쓰리소사이어티스 증류소의 창립자인 도정한 대표는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CNN, 아리랑 TV, 에텔만,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유명 언론 및 IT 기업을 거쳐 왔습니다.

그러던 중 취미로 하던 맥주 양조가 '건전하며 즐겁고 행복한 주류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꿈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도정한 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 임원 자리에서 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핸드앤몰트 브루잉 컴퍼니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후 핸드앤몰트 브루잉 컴퍼니는 한국 수제맥주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엄청난 성장과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들을 이끌어냈고, 2018년 세계 최대의 맥주 회사인 AB INBEV에 핸드앤몰트를 인수합병 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성공은 그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수입 맥주가 주를 이루던 한국 시장에서 수제 맥주의 진정성을 알리고,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지금까지 국산 위스키들이 해외에서 원주를 사와 한국에서 블렌딩 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위스키를 만드는 중요 과정을 한국에서 만들어 보겠다는 결심을 서게 하였습니다.

2020년, 오랜 준비 끝에 한국 최초의 크래프트 싱글몰트 증류소인 쓰리소사이어티스 증류소가 설립되었습니다. 맥주를 만들면서 쌓은 기술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위스키 역시 다양한 제품들을 통해 세계 속 한국 위스키의 위상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TEAM THREE SOCIETIES

OUR TEAM

쓰리소사이어티스의 리더들을 소개합니다



마스터 디스틸러 & 블렌더 앤드류 샌드 / ANDREW SHAND

쓰리소사이어티스 증류소의 마스터 디스틸러인 앤드류 샌드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1980년 글렌리벳 증류소에서 쿠퍼리지(Cooperage)로 위스키 커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글렌리벳 증류소를 소유한 시바스 그룹(Chivas Group) 산하의 증류소들에서 증류기술을 배우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1991년, 그는 일본의 니카 증류소로부터 마스터 디스틸러(Master distiller) 자리를 제안을 받았고, 니카 증류소의 마스터 블렌더와 함께 오늘날 사랑받고 있는 다양한 위스키들을 완성하였습니다.

2001년, 스코틀랜드로 돌아가 스페이사이드 증류소의 마스터 디스틸러와 마스터 블렌더로 겸직하면서 다양한 위스키들을 만들고 전세계의 위스키 행사들을 돌아다니며 지식을 공유하였습니다.

2011년, 스페이사이드 증류소를 매각하면서 앤드류는 자체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고 전세계의 위스키 증류소 프로젝트에 참여해오면서 미국 동부의 가장 큰 증류소인 버지니아 증류소와 윌리엄스 버그에 있는 코퍼폭스 증류소의 몰팅 시설을 디자인 및 설계하였습니다.

위스키업계에 종사한지 올해로 44년을 맞은 앤드류는 그간 쌓아온 경험들을 토대로 다양하고 실험적인 위스키를 한국 최초의 그래프트 싱글몰트 증류소인 쓰리소사이어티스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TEAM THREE SOCIETIES

WHY NAMYANGJU, GYEONGI-DO

쓰리소사이어티스는 왜 남양주에 터를 잡았을까?



깨끗한 지하수

위스키에는 당화, 발효, 희석 등에 다양하게 물이 사용됩니다. 그만큼 위스키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며, 남양주에 예로부터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쓰리소사이어티스는 증류소에 수정을 직접 뚫어 남양주의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하여 위스키를 만듭니다.



높은 연교차와 자연

위스키의 숙성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는 오크통의 숨구멍이 열리며 술들을 나무가 머금고, 추운 날씨 속에서는 작아지면 머금고 있던 술을 내보냅니다. 이렇게 오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숙성의 과정이며, 쓰리소사이어티스는 뚜렷한 한국의 사계절과 더불어 30도 후반의 찌는 듯한 여름과 영하 20도 후반의 혹독한 겨울 속에서 한국만의 특별한 숙성을 만들어냅니다.



증류소 브랜드 영상 / 클릭하시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MADE WITH FOUR SEASONS, KI ONE 한국의 사계절을 담은 싱글몰트 위스키, 기원

싱글몰트 위스키 '기원'은 한국의 뚜렷한 사계절 기후 속에서 숙성이 된 위스키입니다.
또한 한국 최초의 싱글몰트 위스키로서 위스키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세계적인 위스키로 도약하고자 하는 쓰리소사이어티스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약 4,000개의 오크통이 숙성 중에 있으며
뉴오크, 버번, 웨리 캐스크와 더불어 레드와인, 럼, 복분자 등
다양한 캐스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배치 1
버진 오크



배치 2
버진 오크 & 버번 캐스크



배치 3
올로로소 웨리



배치 4
피티드 & 스모크드



한정판
싱글캐스크 에디션



MADE WITH KOREA'S BOTANICAL

한국의 자연을 담은 싱글몰트 진, 정원

정원'은 사전적 의미로 '집 안에 있는 뜰이나 꽃밭'을 뜻합니다.

쓰리소사이어티스가 만들고 있는 싱글몰트 진 '정원'은 한국의 싱글몰트 증류소에서 만드는 진이라는 특징을 살리고자 다른 진들과 달리 위스키 증류소에서 사용하는 몰트 스피릿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보타니컬들을 포함하여 최고급 보타니컬들을 엄선 사용하여 탄생하였습니다.

정원은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정원 그 자체로 음미를 하는 SIPPING GIN으로
칵테일에 묵직함과 한국적인 개성을 줄 수 있는 칵테일의 KICK BASE SPIRIT으로
마지막으로는 한국을 대표하고 여러가지 한국의 자연을 담을 수 있는 술로서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THREE SOCIETIES

HERITAGE STARTS HERE